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1

■ 기후변화와 지속가능경영

2023 January

Vol. 121





COVER STORY

빠른 산업 발전은 사람들에게 편리한 일상을 가져다주었지만, 급격한 기후 변화를 함께 가져왔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경영으로 나아가는 기업의 전략과 방향에 대해 함께 살펴본다.

01	전문가 코칭	04
	기후변화와 지속가능경영	
02	사례돌보기	06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내외 기업 사례	
03	보고서리뷰	10
	기업의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04	컴플라이언스 체크포인트	13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노력	
05	문화 속 기업윤리	19
	기후위기라는 진실을 마주하다 영화, ‘돈룩업’	
06	뉴스클리프	20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동향 / 국내외 동향	
07	웹툰: 바로보는 기업윤리	22
	탄소중립에 도전하기!	
08	행사소식	23
09	퀴즈	24



전문가 코칭

기후변화와 지속가능경영

박 재 흠 파트너/전무

EY한영 ESG 서비스
총괄리더



Q1.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경영활동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이제 기업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여정에 '열정'과 더불어 '진정성'을 담은 활동이 요구되는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약 12,000여개의 기업들이 넷제로(Net-zero 탄소 중립)전략을 천명하였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기업마다의 목표 이행별 수준 차이 및 여러 허점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최근 유엔(UN)은 기업들(금융기관, 도시, 지역도 포함)의 기후목표 실현의 신뢰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고위급 전문가 그룹을 설립하였습니다. 해당 조직은 얼마전 막을 내린 유엔기후협약당사국총회(COP27)에서 과학적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 SBTi) 등 현존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기반한 10가지의 구체적 기준으로 구성된 권고안(그린워싱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권고안에는 기업의 기후목표가 전체 가치사슬망을 포함한 모든 온실가스 배출량의 전반적 감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단기/중기/장기의 단계별 계획도 모두 언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넷제로를 향한 구체적인 전환계획 내에서 자본 지출과 목표 달성의 연계 방향이 명시되어야 하며, 업계 내의 타사와 비교가능한 방식으로 성과가 보고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권고안에는 기업들이 화석연료 공급을 확대하거나 산림 파괴 활동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넷제로 전략을 홍보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미 기업이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외부의 배출량 상쇄 사업보다는

내부적인 저감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듯 앞으로 기업들은 일시적, 단순 홍보 위주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이 아닌,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활동성과’에 기반한 내용 등을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2)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경영은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앞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진정성(Integrity)’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과거부터 지속가능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등 다양한 용어가 언급되어져 왔습니다. 각각의 이론적 생성배경 등은 다소 상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맥락 상에서 보면 지금까지 인류의 경제활동패턴에 대한 반성적 자각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방향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용어들 자체보다는 이들을 관통하는 경영적 함의를 들여다볼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기업경영활동으로 야기되는 부정적 측면의 환경, 사회적 영향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진정성을 담은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후변화는 인류에게 매우 시급한 생존의 문제이며, 동시에 다른 지속가능경영 이슈들에 비해 과학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측정방법론이 존재하고, 이를 저감하는 활동 및 개선 성과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기에 제일 먼저 회자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기후변화를 지속가능경영의 구체적 실현을 향한 1번 타자로 부르고 싶고, 이제 제2, 제3의 이슈들이 기업의 경영 환경 내에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앞으로 지속가능성을 향한 여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린워싱(Greenwashing)이 되지 않도록 진정성을 담은 활동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내·외 기업 사례

사례돌보기



2022년 11월 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이집트에서 제27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회의(COP27)가 진행되었다. UN 기후변화 협약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이상 기후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 국가들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사례돌보기에서는 전지구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살펴본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기업경영활동에 요구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연관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 월마트(Walmart)

월마트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운영과정 또는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월마트의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는 '기가톤 프로젝트(Project Gigaton)'이다. 프로젝트 이름대로 10억 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다.

기가톤 프로젝트를 통해 월마트 제품 공급업체의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여부에 대한 관리 및 평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공급업체는 합리적인 탄소배출 목표량을 설정할 수 있고, 결과보고서에서 공급업체의 탄소배출 감축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월마트는 기가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공급업체들에게 '에너지, 농업, 폐기물, 제품 사용 방식 및 디자인, 포장, 산림'의 6가지 영역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월마트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가톤 프로젝트에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약 4,500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약 5억 7천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다.





2. 포스코 그룹

포스코는 2022년 1월 'Responsible Steel'에 가입을 완료하고 사업장 인증을 추진하여 왔다.

'Responsible Steel'은 호주 소재 다국적 비영리단체인 스틸스튜어드십 위원회(Steel Stewardship Council)가 운영하는 철강 분야 ESG 이니셔티브로, 아르셀로미탈(ArcelorMittal)과 아페렘(Aperam), 블루스코프(Bluescope) 등 철강업체를 비롯해 자동차회사 BMW, 광산회사 BHP, 금융회사인 HSBC 등 7개 단체·조직이 참여하고 있다. 'Responsible Steel'은 철강산업과 관련하여 글로벌 ESG표준을 개발하고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기구이다.

그리고 2022년 10월 포스코포항·광양제철소가 아시아 최초로 'Responsible Steel 사업장' 인증을 받았다. 'Responsible Steel' 인증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ESG경영체계, 안전·보건, 노동권, 인권, 이해관계자 및 커뮤니케이션, 지역사회, 소음·화학물질·폐기물관리, 기업리더십, 물 관리, 생물다양성 등의 370개 요구사항에 대해 제3자 외부기관의 심사 프로세스를 통과해야 한다.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는 아시아 철강사 최초 'Responsible Steel'사업장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이를 통해 포스코의 환경 분야를 비롯한 ESG 경영 우수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포스코건설도 협력사와 함께 공급망 전반에서의 저탄소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건설업계 최초로 중장기 탄소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저탄소 비즈니스를 확대하기 위해 포스코건설은 설비제조사 맞춤형 탄소발자국 산정 툴을 개발해 탄소가 얼마나 배출되는지를 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설비제조사가 탄소배출량을 관리하고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3.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생명은 2021년 업계 최초로 3000억 원 규모의 ESG 인증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며 ESG의 핵심가치를 경영활동에 투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책임투자 채권이라고도 불리는 ESG 채권은 발행 목적에 따라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그리고 이 두 가지 성격이 혼합된 지속가능채권으로 구분된다. 이 중 미래에셋생명에서 발행한 ESG 채권은 지속가능채권이며, 미래에셋생명은 2021년을 '지속가능경영 원년'으로 선포하고 ESG의 핵심가치를 경영활동 전반에 투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ESG 평가 결과에서도 나타나는데 미래에셋생명은 한국ESG기준원(KCGS)의 2021년 평가에서 환경 부문 C 등급을 받았으나 2022년에는 B등급으로 상승하였으며, 사회 부문에 대한 평가에서는 2021년 이미 A+ 등급을 받은 바 있다.

환경부문의 등급상승은 미래에셋생명이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 투자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친환경 인프라 조성과 관련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2020년에는 업계 최초로 문서편철을 폐지하고 페이퍼리스(Paperless) 업무환경을 구축하는 등 친환경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페이퍼리스 업무환경 구축을 위해 미래에셋생명은 제휴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진료데이터를 연동하여 진료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이서류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는 보험청구 서비스를 오픈하기도 하였다.

기후변화는 기업의 재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기업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및 기회요인이므로 기업들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기후변화 관련 기업 대응이 ESG 평가 대상의 하나라는 점에서 이를 기업 지속가능경영의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기후변화 관련 기업 대응은 지속가능성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위험요인이기도 하지만 기회요인이기도 한 기후변화에 우리 기업들의 대응을 기대한다.

참고

<http://www.wome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480>

<http://www.news2day.co.kr/article/20221206500156>

<https://www.walmartsustainabilityhub.com/climate/project-gigaton>



기업의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 TCFD(2017).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는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의 약자로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이다. 그동안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지만 기후변화의 측정이 어렵고 그 심각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빠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TCFD는 기후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기업의 경영활동에 기후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5년 12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보고서 리뷰에서는 2017년 처음 발표된 TCFD의 권고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권고안은 기업들의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리스크 요인을 수치화하여 이를 재무적으로 통합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의 통합적 정보제공은 투자자를 포함한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1. TCFD 권고안 배경

금융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업경영활동 관련 정보의 제공 필요성, 특히 환경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투자자를 위한 기후 공시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경제 이행에 세계 각국이 동의함에 따라 기업도 기후변화의 위험 또는 기회를 마주하게 되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업정책의 변화, 신기술 도입 등은 기업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따라서 투자자나 기업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커진 것이다.

이처럼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활동 등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커지자, TCFD는 산업 구분 없이 적용할 수 있는 기후 관련 공시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 권고안의 특징은 모든 조직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여기에서 제시하는 정보를 재무제표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TCFD 권고안에 따라 제공된 정보는 기업의 재정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되며,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기업이 맞닥뜨린 위험과 기회를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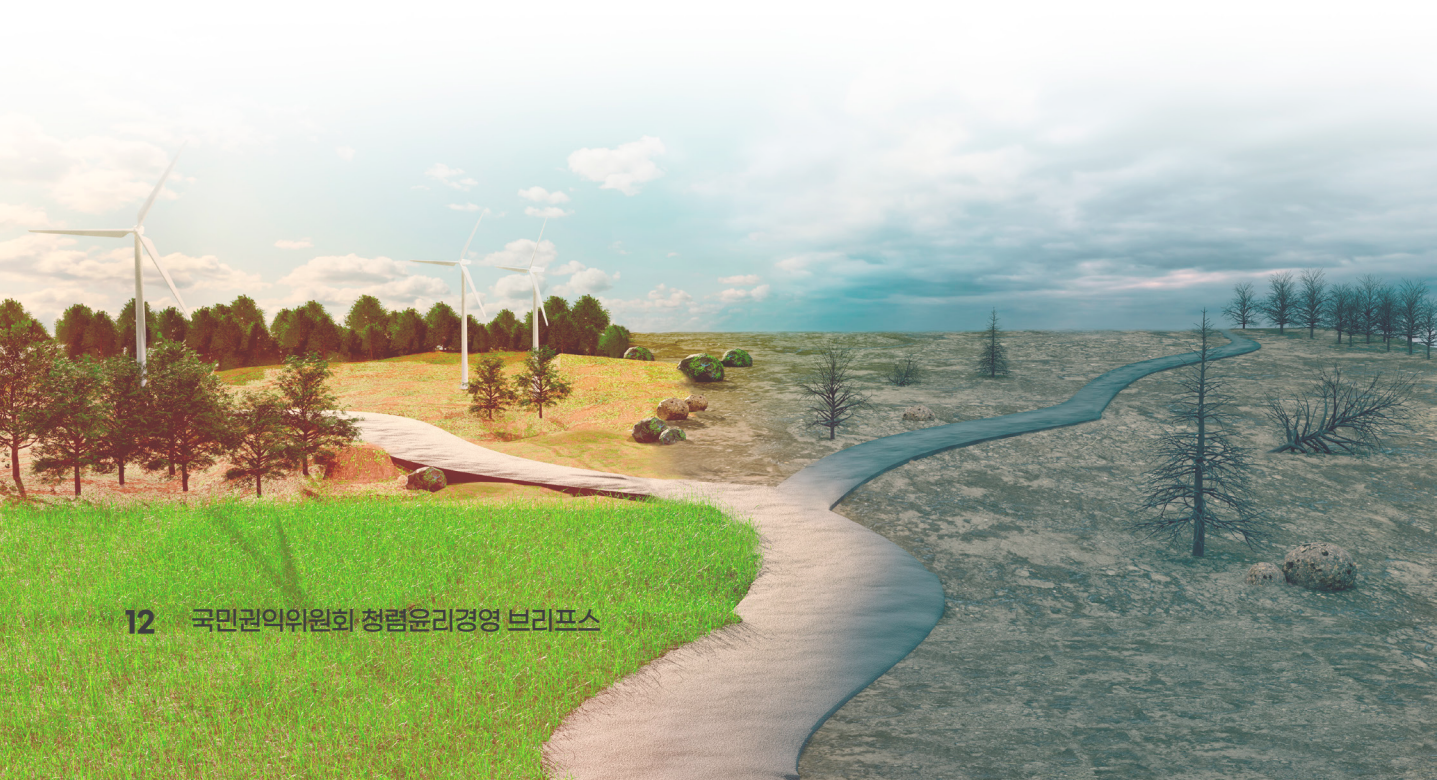
2. TCFD 권고안 주요 내용

TCFD 권고안은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측정 및 목표’의 4가지 측면에서 기업이 공시해야 할 기후 관련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거버넌스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요인에 대한 거버넌스 공시 1.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요인에 대한 이사회 감독사항 2.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요인에 대한 평가·관리에 있어 경영진의 역할
전략	경영활동, 전략 및 재무계획에서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요인에 따른 실질적·잠재적 영향 공시 1. 조직이 단기, 중기, 장기로 파악한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요인 2. 조직의 경영활동, 전략 및 재무계획상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요인의 영향 3. 조직의 경영활동, 전략 및 재무계획상 다양한 시나리오의 잠재적 영향

리스크 관리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요인 파악, 평가 및 관리방식 공시 1.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요인의 파악·평가·관리 프로세스 2.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요인 관련 프로세스와 조직의 전반적 리스크 관리의 통합 방식
측정 및 목표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요인에 관한 평가·관리의 측정기준 및 목표 공시 1.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요인 평가에 사용되는 측정기준 2. 온실가스 직접배출량, 간접배출량, 공급망(물류, 협력사 등)의 배출량 및 관련 리스크 3.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요인, 목표 대비 성과 관리에 사용하는 목표

기후 관련 공시 요구가 강화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이 기후변화 관련 투자리스크 및 기회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경영체계에 반영할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TCFD 권고안은 말 그대로 의무사항이 아니라 기업에 권고하는 자율공시의 성격이나, ESG 공시가 확대되는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의무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TCFD 권고안에 따라 기후변화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넷제로정책 등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은 더 이상 선택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정확한 리스크 분석과 대응은 필수이며, 기후변화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기업들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컴플라이언스
체크포인트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노력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1988년 UN총회 결의에 따라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을 설치하였고,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였다. 또한,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요건을 강화한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최종안에 합의하였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가 | 기본원칙과 의무사항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책임 경영을 권장하기 위한 이행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인권과 관련된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기본원칙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되,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은 차별화된 책임을 진다.

• 의무사항

모든 당사국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정책/조치 및 국가 온실가스 배출 통계가 수록된 국가보고서를 UN에 제출한다.

나 | 교토의정서와 신기후체제

•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스 감축에 구속력이 없음에 따라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하여 과거 산업혁명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38개국)을 대상으로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동안 1990년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을 규정하는 교토의정서를 제3차 당사국총회(일본 교토, 1997)에서 채택하여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시켰다.

• 신기후체제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집중하였으나,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미 발생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목표로 파리협정을 체결하였다. 파리협정은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후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들에 '국가결정기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제출 의무를 부과하였다.

(1) 파리협정(Paris Agreement, 2015)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협정으로, 주요 요소별로 2020년 이후 적용될 원칙과 방향을 담은 합의문 채택

(2) 국가결정기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당사국이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제출한 목표로 '감축, 적응, 자원, 기술, 역량배양, 투명성'의 6개 분야 포괄

• 교토의정서와 신기후체제 비교

구분	교토의정서	신기후체제
목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1차: 5.2%, 2차: 18%)	2°C 목표 1.5°C 목표 달성 노력
범위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	감축을 포함한 포괄적 대응 (적응, 자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투명성 등)
감축 대상국가	주로 선진국	모든 당사국(미국 탈퇴)
감축목표 설정방식	하향식(top-down)	상향식(bottom-up)
적용시기	1차 공약기간: 2008~2012년 2차 공약기간: 2013~2020년	1999

다 | 주요국의 기후변화방지 대책

국가	기후변화방지 대책
EU	높은 수준의 감축목표 설정 등 파리협정 이행의 모범적 역할 수행 • '2030 기후·에너지 프레임워크' 마련 • '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90년 대비) 및 재생에너지 비중·에너지 효율 개선 추진 • EU 전역에 걸친 배출권거래제(ETS) 시행 • 자동차 부문에 대한 '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영국	세계최초, 기후변화법 제정, 청정성장전략 발표 등 선도적 대응 추진 • '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목표를 법제화 • 청정성장전략(Clean Growth Strategy)에 따라 해상풍력, 전기차 CSS 기술 등에 투자계획 발표
프랑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세계적 노력 강조 등 리더십 발휘 • EU 회원국에 재생에너지 촉진을 위한 탄소가격 하한제 채택 촉구 • '40년까지 석유차량 판매중단 • '22년까지 석탄발전 중단 •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25년까지 원전 의존도 50% 축소 법안 발표
미국	주요 정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 동참 의지 표명 • 뉴욕시, 화석연료에 투자된 연기금 회수 발표 • 매사추세츠주, 발전소 배출권거래제 도입 • 캘리포니아주, 배출권거래제 '30년까지 연장, '45년까지 탄소 제로화 선언
중국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 등 기후변화 대응 의지 강화 • '30년까지 GDP당 탄소배출량을 60~65% 감축(05 대비)하는 목표 설정 • 전국단위 배출권거래제 도입 및 시행 계획 • '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GDP당 40~45% 감축)를 3년 앞선 '17년에 조기 달성(46%) • 주요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원인인 철강 등 중공업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18~'20년간) 계획 발표('18.7)

※출처: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19)

2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이 설립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2022년 3월 31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 최종안을 공표할 예정이다. ISSB 기준은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이슈를 다루는 'IFRS S1 일반 요구사항'과 기후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IFRS S2 기후 관련 공시'로 구성된다.

가 | IFRS S1 일반 요구사항

- 투자자의 기업가치 평가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중요 위험·기회 요인 공시
- 지속가능성 관련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관리, 지표·목표 등 기업가치 산정에 필요한 정보공개 요구

나 |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 ISSB가 지속가능성 관련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기후’ 관련 공시기준으로,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관련 중요 위험·기회 요인에 대한 구체적 정보 공개 요구
- 모든 보고기업에 대해 Scope 1·2·3* 배출총량 및 배출집약도**, 기후전환 위험에 노출된 자산규모 등 ‘산업전반지표(Cross-industry Metrics)’의 공시를 요구

* Scope 1 (직접배출) : 기업의 핵심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2 (간접배출) : 기업이 구입한 에너지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

Scope 3 (기타 간접배출) : 기업 공급망 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

** 배출집약도 :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물리적 또는 경제적 산출물로 나눈 수치

다 | IFRS S1 / S2의 주요 공시대상

분류	기준	주요 공시항목
거버넌스	S1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 기회를 감독하는 의사결정기구의 명칭, 권한 • 지속가능성 관련 성과지표가 의사결정기구의 보상정책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S2	• 기후 관련 위험 · 기회를 감독하는 의사결정기구의 명칭, 권한 • 기후 관련 성과지표가 의사결정기구의 보상정책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전략	S1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 기회 관련 전략 • (가능할 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 기회가 기업 재무상태, 현금흐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양적 정보 등
	S2	• 사업모형, 전략, 현금흐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관련 위험 · 기회 • 기후 관련 위험 · 기회 관련 전략 • (가능할 시) 기후 관련 위험 · 기회가 기업 재무상태, 현금흐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양적 정보 등

리스크 관리	S1	- 지속가능성 관련 위기·기회 식별방법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식별·평가·관리가 기업 전체 리스크관리 과정에 통합된 정도 등
	S2	- 기후 관련 위기·기회 식별방법 - 기후 관련 위험 식별·평가·관리가 기업 전체 리스크관리 과정에 통합된 정도 등
지표·목표	S1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를 관리·감독하고 성과를 측정할 시 사용하는 지표 -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에 활용된 지표 등
	S2	(산업전반지표) 온실가스 배출총량 및 배출집약도, 기후전환 위험에 취약한 자산규모, 기업이 탄소가격을 의사결정에 적용하는 방안 등 (산업기반지표) SASB의 지속가능산업분류체계(SICS)에 따른 산업별 기후관련 핵심 이슈 관련 지표 등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2.05.12),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공개 의견수렴"

3 지속가능성 관련 주요 공시 기준

ISSB 기준은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지속가능성 정보 수요를 반영하여 TCFD, SASB, GRI 등 기존 공시기준들의 내용을 통합하였다. 지속가능성 정보공시와 관련하여 국제기관에서 제시한 정보공시 관련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준명	제정기관	발표연도	주요 내용	특징
TCFD 권고안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 TCFD)	'17년	기후변화 관련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관리, 지표 및 목표 등 4개 핵심 요소 제시	-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 산하의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주도 - ESG 이슈 중 '기후변화' 관련 정보 공개에 집중
SASB 기준	가치보고재단 (Value Reporting Foundation ; VRF)	'18년	77개 산업별 지속가능성 이슈 관련 공시지침	- 美 재무회계기준위원회 (FASB) 주도 '21.6월, 동 기준의 기준 제정기관인 SASB가 IIRC(국제통합보고위원회)와 합병하며 VRF로 조직 개편

GRI 기준	글로벌보고 이니셔티브 (Global Reporting initiative ; GRI)	'00년	• 환경 8개, 사회 19개, 경제 6개 주제별 영향 보고를 위한 세부지침	• 美 비영리기구 CERES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도 •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사회적 요인과, 기업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반영
-----------	--	------	---	---

자료 : 사회적가치연구원('21.2월) 'ESG Handbook' 및 각 기관 홈페이지

가 |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권고안

TCFD 권고안의 틀은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목표 등 4개의 핵심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ISSB기준은 이러한 틀을 차용하였다.

나 |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기준

SASB 기준은 기후 관련 산업기반 요구사항에 기반하여 개별 산업의 특성과 기후 관련 이슈에 부합하는 산업기반지표를 도입하였다.

다 |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기준

GRI는 환경·사회적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환경·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ISSB는 글로벌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GSSB)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GRI 기준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세계 기후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가 이미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국제사회는 다양하고도 강력한 조치를 계획하고, 또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대응에 따라 국내에서도 정부와 기업들이 국제 수준에 상응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참고

- 〈기후변화홍보포털〉 <https://www.gihoo.or.kr/portal/kr/measure/international.do>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https://kosif.org/esg-2/?vid=51>
-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초안) 주요 내용〉 <https://zrr.kr/2pls>



문화 속
기업윤리

기후위기라는 진실을 마주하다

영화, '돈룩업'



* 이미지출처: 네이버 영화

혜성충돌로 인한 지구종말 위기를 다룬 영화 '돈룩업'은 공상 SF 재난영화가 아닌,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현대사회에 대한 풍자극이다. 기후위기로 전 세계에 대형 산불, 가뭄, 폭우가 거듭 반복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2년 한 해 동안 기록적인 폭우와 극심한 가뭄이 공존하는 기이한 기상현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미 기후위기와 그로 인한 재난은 현재진행형이며, 세계경제포럼은 2050년 안에 최소 12억 명이 기후난민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는 기후위기에 대한 주장을 '과도한 공포심 조장'으로 여기며 회피하고 당장의 편의와 발전을 추구한다. 기후위기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과 환경보호에 대한 신념을 마케팅의 도구로만 활용하는 기업의 '그린워싱'까지 만연하다.

전 인류가 봉착한 위기에 대하여 기업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기업의 모든 활동은 어디로 향하는가. 우리 눈앞에 닥친 진실을 직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가진 기업으로서 사회와 생명을 위기로부터 지키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을 지금 바로 실행해야 한다. 지구를 향해 달려오는 혜성처럼,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과 피해는 지금 이순간에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6개월 후 99.78%의 확률로 지구와 충돌하여 지구 전체를 파괴할 거대 혜성을 관측한 천문학자들은 이 재난을 예방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를 찾아간다. 그러나 선거를 앞둔 정부의 관심은 지구를 멸망시킬 혜성이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뿐이다. 언론은 '약도 달아야 먹기 쉽다.'며 이 무거운 진실을 유머처럼 다루고, 위기의식이 없는 대중은 울분을 토해 내듯 사실을 전하는 혜성 최초발견자 디비아스키를 감정적이고 예민하다며 조롱한다. 정부는 진실을 알리는 것이 손해라고 판단되자 이를 정치적 갈등으로 몰아가고, 사람들은 다가오는 진실 앞에 대립한다.



뉴스클리프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동향

국민권익위, 법조계·경제계 등 전문가와 2차 정책자문단 간담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의 ESG 경영과 국제 반부패 규범 대응 강화를 위해 법조계·경제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 간담회를 12월 22일 개최했다. 반부패를 포괄하는 개념인 거버넌스(G) 관련 국내 논의가 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 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민권익위는 기업이 ESG 경영 및 국제 반부패 규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지속적·효율적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ESG 경영 및 국제 반부패 규범 강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반부패 분야 및 법조계·경제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 운영 방안을 보완하고, 기업용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하는 등 기업의 청렴윤리경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 국민권익위 2022년 12월 22일

https://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43393

전현희 위원장, 'ESG 및 청렴윤리경영' 주제로 윤경ESG포럼, 대한변협 강연 실시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12월 1일 윤경ESG포럼, 12월 16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ESG 및 청렴윤리경영'을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앞으로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등에 따라 ESG 공시 의무가 강화되고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평가 결과를 보면, 뇌물·부패·지배구조 등 거버넌스(G) 지수에서 글로벌 기업에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현희 위원장은 ESG 경영의 국제기준과 이 중 G 분야 핵심 요소인 청렴윤리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민권익위의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참고: 국민권익위 2022년 12월 1일, 12월 16일

https://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43331

https://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43085

국내외 동향

韓 유해성 따른 차등규제, OECD 모범사례



내년 1월 발간 예정인 OECD '녹색 전환을 위한 더 나은 규제' 보고서 초안이 지난 6일 공개됐다. OECD는 '좋은 환경규제'의 조건으로, 엄격성·유연성·일관성 유지, 정기적 규제 검토,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참여, 과학적 분석·디지털 기술 활용, 협력적이고 일관적인 국제 공조 등 5가지를 꼽았다. OECD는 한국의 환경규제가 일정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여, 이번 보고서에 한국 환경규제 모범사례 4가지를 제시했다. 한국사례에는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 기반 규제 설계, 환경 규제를 컨설팅하는 '그린업'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참고: 매일경제 2022년 12월 6일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056297?sid=101>

기후위기, 美 주도 신시장 '청정수소' 고용 대안으로 떠오르까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위기 속에서, 미국이 '친환경 경제'의 첨병으로 '청정수소'를 택하자 세계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래 일자리 분야에서 청정수소 분야가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24일 친환경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9월 발표한 '국가 청정수소 로드맵 초안'을 통해 2030년까지 미국에서 총 1000만 톤, 2050년에는 총 5000만 톤의 청정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며, 미국은 매년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지정했다. 이에 발맞춰 각국도 청정수소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참고: 헤럴드경제 2022년 12월 24일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221224000013#>



바로보는 기업윤리

웹툰

탄소중립에 도전하기!



기록적인 폭우, 유례없는 가뭄, 대규모 산불로 자연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지금 대처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행사소식

제1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



국내외 석학과 각 분야 전문가가 300여명의 CEO 및 임원을 대상으로 신국제 질서의 도래, 지정학적 위기, 글로벌 경기침체, 신기술 등 최근 대변혁 시대에서의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제시하고 토의하는 포럼

주최 한국경영자총협회

일정 2023년 2월 16일(목) ~ 17(금)

대상 기업·단체·공공기관의 경영자·임원 등

장소 조선포텔 1층 그랜드볼룸

참고 <https://www.kefplaza.com/web/pages/gc74050a.do?bbsAuth=0&siteFlag=www&bbsFlag=View&bbsid=0013&nttid=21000&pageIndex=1&mnuId=gc74050a&returnUrl=&searchCnd=0&searchWrd=>

2023 European Business Ethics Forum



기업 컴플라이언스 · 윤리경영 프로그램 담당자들과 기업의 모범 사례 및 비즈니스 수행시 제기되는 이슈들을 함께 공유하고 탐구하는 기업윤리 포럼

주최 EC(Ethics & Compliance Initiative)

일정 2023년 2월 1일(수) ~ 3일(금)

장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메리어트 호텔

참고 <https://www.ethics.org/events/2023-european-business-ethics-forum/>



퀴즈

Q.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는 노력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온실가스 배출 감축
- ② 무분별한 개발
- ③ 친환경 재생에너지 개발
- ④ 기후 위험 식별과 대응

퀴즈 응모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mail@innocrew.co.kr)
정답과 성함,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세요(1월 20일 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 발송을 위한 정보로만 활용되며, 추첨 이후 파기됩니다.



지난 호 정답자는

이은호님, 정언진님, 박민경님, 배상운님, 정채윤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